



비룡소의 그림동화 242

1분이면...

안소민 글 · 그림 | 40쪽 | 양장 | 188x230mm | 값 12,000원

ISBN 978-89-491-1264-0 74800 / ISBN 978-89-491-1000-4(세트)

2016년 5월 31일 (주)비룡소 발행

시간과 행복의 의미를 다룬 철학 그림책

『1분이면...』 이탈리아, 한국 동시 출간

전 세계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작품만을 엄선하여 발굴하는 이탈리아 꼬라이니가 주목하는 신예 한국 그림책 작가 안소민의 신작 『1분이면...』이 (주)비룡소에서 출간되었다. 『1분이면...』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개념'과 '시간관념'을 쉽게 인식시켜 주는 그림책이다. 꼭 지켜야 할 시간과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보내도 되는 시간을 아이들이 구별할 수 있게 이해시켜 준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어른들에게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느끼게 해 줄 그림책이다. 첫 장면은 1분으로 살펴보는 시간개념과 재밌는 통계로 보는 1분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시간의 길이도 다르게 느껴지는 '시간과 감정의 연관성'을 들려준다. 이야기는 더 뻗어 나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시간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상반된 1분으로 그려 '객관적, 주관적 시간관념'도 보여 준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며 한 번은 겪게 되는 뜻밖의 일들을 1분으로 담아 '행복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겨 준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행복한 것인지 잊지 말라고 그림책 『1분이면...』이 따뜻하게 다독여 줄 것이다.

● 날마다 행복한 1분을 보내요

『1분이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부터 우리의 일생까지 시간과 행복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다룬 울림이 깊은 그림책이다. 1분으로 시계의 분침과 초침 단위를 설명하는 시간개념으로 시작한 이야기는 1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야기 속 아이는 1분 동안 강아지를 꼭 껴안아 주고, 작은 새 한 마리에게 인사도 건넨다. 누군가에게 다정한 마음을 표현하는 데 1분이면 충분하다

고 작가가 슬며시 들려준다. 그다음에는 같은 시간의 길어도 즐겁거나 괴로운 감정에 따라 달리 느끼는 '시간과 감정의 연관성'을 어린아이가 보아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풀어 놓았다. 작가는 이야기를 발전시켜 '객관적, 주관적 시간관념'으로 끌고 나간다. 누구나 지켜야 하는 객관적 시간 관념은 기차의 출발 시각으로 나타내고,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주관적 시간관념은 비 오는 풍경을 바라 보는 것으로 표현했다. 시간의 의미를 더 확장하여 철학적으로 바라본 작가는 우리 삶의 처음과 끝을 아우르며 이야기를 맺는다.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순간들을 1분으로 담아 우리네 인생살이를 따뜻하게 보듬는다. 하루하루 비슷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오늘의 작은 행복'이라고 되새겨 준다.

● 사랑스러운 캐릭터의 풍부한 표현미 그리고 종이의 멋

『1분이면...』은 손에 쥘 순간 종이의 촉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독특한 그림책이다. 독자에게 원화의 느낌과 종이의 질감이 잘 전해지도록 표지에 코팅을 하지 않았다. 빛과 공기에 종이 바렐수록 종이의 멋도 더욱 깊어져 그림책에 시간이 새겨지는 것을 지켜보며 즐길 수 있다.

표지에서부터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등장한다. 두 볼이 빨그스름한 여자아이이다. 배경이 텅 빈 장면들은 독자를 캐릭터에 더 몰입하게 한다. 단순한 선으로 마치 아이가 그린 것 같은 생김새지만, 표정과 감정은 풍부하다. 등장하는 캐릭터의 크고 작은 동작에서조차 감정이 느껴질 정도로 표현미가 돋보인다. 장소가 드러나는 장면들은 아기자기하게 그려, 그림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있다. 첫 장면에 그려진 시계의 눈금판을 들여다보면, 씨앗에서 싹이 터 봄여름가을겨울을 나는 나무의 한살이가 그려져 있다. 눈금판이 우리네 인생살이와 닮았다. 안소민 작가는 단순하면서도 상징적인 그림으로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주제를 뚜렷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점이 뛰어나다. 유럽 독자들이 주목하는 신예 그림책 작가의 다음 작품이 벌써 기대된다.

● 독자에게 주어진 숨은 선물 즐기기

『1분이면...』에는 숨은 선물이 있다. 그림책 독자라면 힘들이지 않고, 숨은 선물을 바로 알아챌 것 같아 스스롭다.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아무 글도 아무 그림도 없는 텅 빈 종이가 나타난다. 이 텅 빈 종이가 숨은 선물이자 책을 구입한 독자만이 오롯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1분', '함께 하고 싶은 1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1분'처럼 나만의 『1분이면...』을 글이나 그림으로 책에 남길 수 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부모가 아이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상 속 소소한 작은 행복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 작가 소개

안소민 이화여자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을 공부했고, 영국 브라이턴 대학교에서 시퀀셜 디자인 앤 일러스트레이션 석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1분이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풀어낸 첫 번째 그림책입니다. www.jadeinapond.com

담당 : 이영애 02)515-2000(내선번호 322)/ sto@bir.co.kr